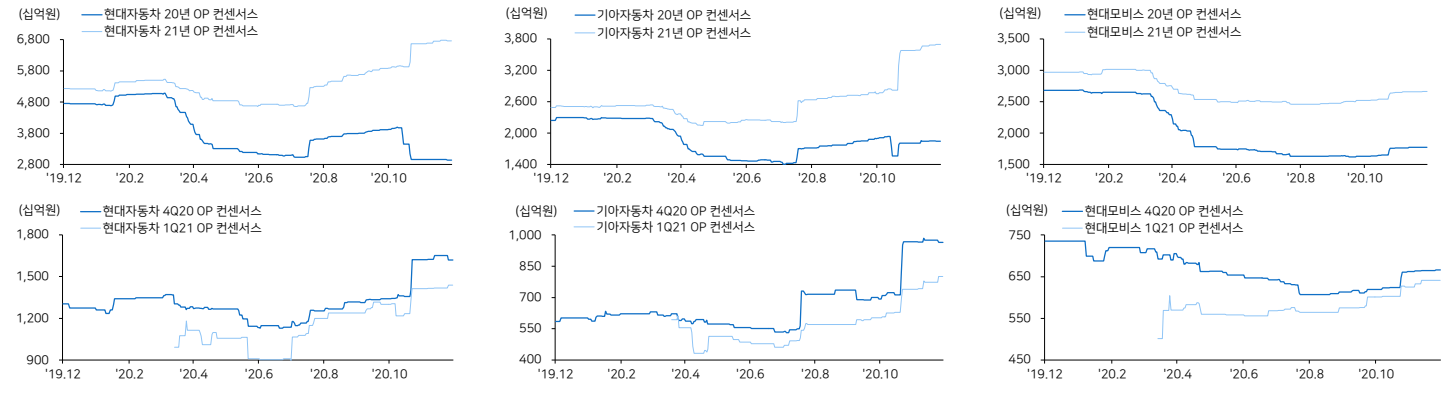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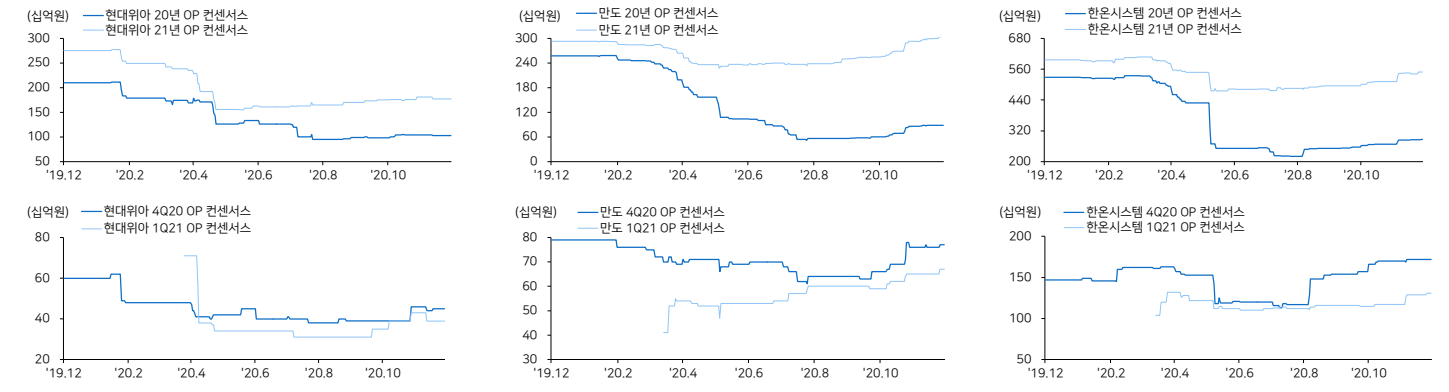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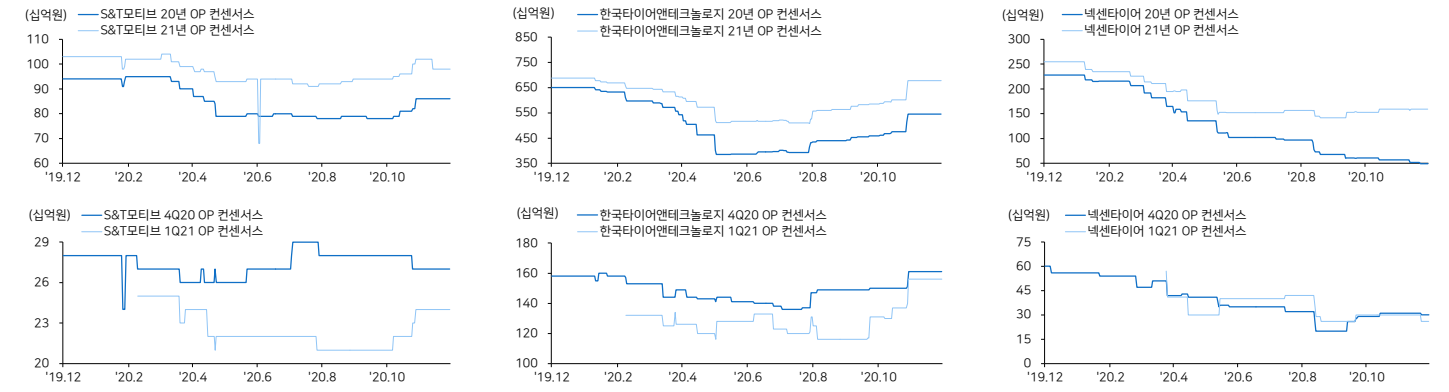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내년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선보인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와 LS일렉트릭이 2021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용 발전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 9월 유럽에 발전시스템 제작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수출한 바 있음. <https://bit.ly/3oBn0fg>

규제 3법에 '현대차vs엘리엇 악몽' 또?...연구개발 비용, 경영권 방어에 쏟아낼 판 (뉴스핌)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 최종 통과. 이번 법안 통과를 반대해 온 경제계는 크게 위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데 허탈감을 감수하지 못할. <https://bit.ly/3n2fe77>

도요타, 신형 '미라이' 출시하고 수소 사업 확대...미국서 현대차와 맞붙는다 (조선비즈)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수소차 시장 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도요타는 9일 출시된 수소연료전지차 '미라이' 2세대 모델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 신형 미라이는 내년 초 미국 시장에도 출시될 예정이다. 현대차와 맞붙는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9/202012090221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medium

중국 투입계, 반도체 부족으로 '조립 중단' 속출 (조선비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듯 했던 중국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부족 공급 급속'이라는 불평을 만만찮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이 9일 보도.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9/202012090297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KT-현대차, '제네시스 GV70'에 지니뮤직 서비스 탑재 (조선비즈)

KT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15일 출시하는 신형 '제네시스 GV70'에 커넥티드카 지니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적용했다고 9일 밝혔다. 차량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블루투스로 연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9/202012090205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도심항공모빌리티 접는 우버, 현대차도 궤도수정 불가피 (비블로티)

우버가 자율주행차 사업에 이어 항공운송 개발 사업부인 '우버 엘리베이트'도 매각하기로 함. 한편 우버 엘리베이트의 매각으로 현대차의 항공택시 프로젝트도 차질을 빚게 됨. 현대차는 우버 엘리베이트와의 긴밀한 협업을 공언한 바 있음. <https://bit.ly/2W24Hww>

도심항공모빌리티 접는 우버, 현대차도 궤도수정 불가피 (비블로티)

우버가 자율주행차 사업에 이어 항공운송 개발 사업부인 '우버 엘리베이트'도 매각하기로 함. 한편 우버 엘리베이트의 매각으로 현대차의 항공택시 프로젝트도 차질을 빚게 됨. 현대차는 우버 엘리베이트와의 긴밀한 협업을 공언한 바 있음. <https://bit.ly/2W24Hww>

중 자동차 시장 호황 이어가는데... 전망은 '불투명' (아주경제)

최근 중국 자동차 시장 호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리스크 우려가 커지면서 내년 시장 호황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 중국 내 파운드리 생산라인의 정상 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 <https://bit.ly/3m1739f>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